

# 대학 강의계획서 개발의 융합적 연구

문원희<sup>1</sup>, 박옥희<sup>2\*</sup>, 최임숙<sup>3</sup>

<sup>1</sup>배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p>2</sup>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대학 교수, <sup>3</sup>배재대학교 교직부 교수

## A Convergence Study on Developing a Syllabus for Tertiary Education

Weon-Hee Moon<sup>1</sup>, Ok Hee Park<sup>2\*</sup>, Im-Sook Choi<sup>3</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Pai Chai University

<sup>2</sup>Professor, Ju Si Gyeong Liberal Arts College, Pai Chai University

<sup>3</sup>Professor, Division of Teacher Training, Pai Cha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D광역시 소재 P사립대학에서 대학수업의 질 개선의 일환으로 강의계획서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절차는 문헌연구를 통해 강의계획서의 정의와 구성요소를 추출하였고, 전국의 4년제 대학교 중 참여를 승낙한 27개 대학의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여 구성요소와 내용을 분석하였고, P대학 소속 교수 15명을 대상으로 강의계획서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연구팀에 의해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강의계획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강의계획서는 국내 저명 교육학 전문가 2명의 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강의계획서는 핵심 기본 요소와 교과목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수자의 선택 요소로 구성하여 사용자의 자율성과 편리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확장된 방식에 따라 다양하고 독창적 강의계획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강의계획서 분석, 강의계획서의 구성요소, 강의계획서에 대한 교수자 의견, 강의계획서 개발, 전문가 평가

**Abstract** The study aims to establish a syllabus for P university in an effort to improve the quality of tertiary education. Twenty seven universities' syllabi were collected in order to compare their components and contents.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5 professors at P university, and their opinions were collected. As a result of several processes, including analyzing previous studies for syllabi, investigating other universities' syllabi, and interviewing faculty at P University, a syllabus of an accordion type was suggested for use at P university. The developed syllabus was examined by two experts in the education field. The pedagogical implication and suggestions for an established syllabus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Analysis for syllabi, Components of a syllabus, Professors' opinion for syllabus, Development of a syllabus, Examination for a syllabus

### 1. 서론

최근 우리나라 대학은 대학 평가와 학습자들의 요구 등 대내외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 개선에 대한 많은 요청을 받고 있다.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수업의 질이

개선되어야 하고,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수업의 계획 및 운용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한다.

강의계획서는 학습자에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과 방향을 보여주는 지도'[1]로 학습자는 강의계획서를 보고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어떤 성과를 이루게 될 것인가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Pai Chai University in 2018

\*Corresponding Author : Ok-Hee Park (okpark@pcu.ac.kr)

Received July 31, 2018

Accepted October 20, 2018

Revised August 20, 2018

Published October 28, 2018

지를 미리 예측해볼 수 있다[2]. 한편, 교수자에게 강의계획서는 교수설계 결과물로서 학습자에게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하는 동시에 교수자의 수업에 대한 열성, 전문성, 책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이다[3]. 이와 같이 강의계획서는 학습자와 교수자가 수업이 시작되기 전 미리 하는 상호작용의 공간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수업에 대한 사전 동의 및 합의의 계약이자 의사소통의 도구'[4]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의계획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대학 수업의 질과 관련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그러나 그간 강의계획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일종의 행정문서나 형식적인 절차로 받아들여진 경향이 많았고[5],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강의계획서의 비구조화와 지원 시스템의 단순함으로 인해 강의계획서의 공유, 재사용성, 타 서비스로의 연계 등 강의계획서를 활용하는 효용성이 낮았다[3, 6].

그동안 강의계획서와 관련한 선행연구 또한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먼저, 강의계획서의 구성요소(components)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7-8]. 강의계획서의 구성요소는 강의계획서를 이루는 핵심으로 강의계획서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적절하고 타당한 구성요소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오랜 논의가 있어왔지만 통일된 의견과 용어 사용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 강의계획서에 대한 학습자 혹은 교수자의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2, 9-10],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을 반영한 강의계획서 작성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강의계획서를 분석한 연구에서는[11-14], 주로 특정 학과의 교육과정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의계획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는데[3, 6, 15-16], 이 연구들은 특정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이거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본 연구는 D광역시에 위치한 P사립대학의 강의계획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타 대학의 강의계획서를 분석하고, 수업을 직접 설계하는 교수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된 강의계획서에 대한 교육전문가의 평가를 받고 보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P대학 교육위원회에서 실행한 '표준수업계획서 개발 연구'[17] 자료의 일부를 재분석한 2차 연구이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강의계획서에 대한 문헌 연구, 수집한 강의계획서의 분석을 통한 사례 연구, 강의계획서를 작성하는 교수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실증 연구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P대학에 최적화된 강의계획서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연구도구

#### 2.2.1 강의계획서의 구성요소 분석

본 연구자들을 포함한 6인의 대학교수가 내용전문가로서 문헌고찰을 통해 강의계획서의 구성요소를 6개의 대분류와 세부항목 총 52개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이 52개 항목을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다. 전국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전화, 이메일을 통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27개 대학으로부터 수집된 강의계획서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다.

#### 2.2.2 교수자 인터뷰

이메일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P대학 교수 15명을 대상으로 강의계획서에 관한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질문은 총 6개 문항으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 강의계획서에 꼭 필요한 항목을 말씀해주세요.', '담당교수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과 범위는 어느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의계획서의 양식은 어떤 것이 좋습니까?', '수업 규정에 넣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새로운 강의계획서에 대한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로 구성되었다.

사전 동의를 받은 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하여 평균 20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모든 내용은 녹취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2.3 연구기간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었다. 수집된 27개 대학 강의계획서의 구성요소와 15명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P대학 맞춤형 강의계획서를 설계하고 전산화하였다. 개발된 강의계획서는 2인의 타 대학 교육전문가로부터 평가를 받아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4 자료 분석

27개 대학 강의계획서의 모든 구성요소를 본 연구진이 작성한 분석의 틀에 맞추어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대학 간의 비교 분석을 위해 IBM SPSS 22.0 프로그램의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15인의 교수인터뷰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료 수집 단계에서 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필사하고자 하였고 모든 자료는 녹음하여 재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질적 연구 관련 교육을 받은 본 연구원 1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졌고, 연구원 3인의 빈번한 상호작용과 검토를 통해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학 강의계획서 구성요소 분석

수집된 27개 대학의 강의계획서 구성요소는 본 연구진이 6개의 대분류와 52개 세부항목의 틀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최종 6개의 대분류와 38개의 세부항목으로 재구성되었다. 14개 항목은 일부 소수 대학에서만 사용되어 구성타당도가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되었다. Table 1은 27개 대학 강의계획서의 구성요소를 38개의 세부항목으로 빈도 분석한 결과이다.

6개의 대분류는 ‘교과목 기본정보’, ‘교수자 정보’, ‘교과목 설명’, ‘교재’, ‘주차별 계획’, ‘기타’로 분류되며 세부항목별 27개 대학 강의계획서의 구성 빈도는 다음과 같다.

‘교과목 기본정보’에 속하는 세부항목 10개는 ‘과목이름’(100%), ‘과목코드’(92.6%), ‘학점’(92.6%), ‘이수구분’(59.3%), ‘수업시간’(48.1%), ‘수강대상’(48.1%), ‘강의실’(44.4%), ‘분반’(40.7%), ‘개설학과/부’(22.2%), ‘선수과목’(18.5%)순으로 분석되었다.

‘교수자 정보’의 세부항목은 모두 10개로, ‘교수자 이름’(88.9%), ‘이메일’(70.4%), ‘상담가능시간’(66.7%), ‘교수와 연락 가능한 번호’(55.6%), ‘연구실 위치’(37%), ‘교수 홈페이지’(33.3%), ‘교수의 소속 학과’(29.6%), ‘연구실 전화번호’(29.6%), ‘조교연락처’(22.2%), ‘핸드폰번호’(18.5%)순으로 분석되었다.

‘교과목설명’의 7개 세부항목 중 ‘평가방법’(100%)은 27개 대학이 모두 사용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수업개요’(96.3%), ‘수업목표’(96.3%), ‘수업방법’(63%), ‘과제’(55.6%), ‘수업규정’(29.6%), ‘매체’(22.2%) 순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 Analysis of components on syllabi

(N=27)

	Category	Frequency(%)
Information for subject	Subject name	27(100)
	Subject code	25(92.6)
	Credit	25(92.6)
	Completion division	16(59.3)
	Eligible students	13(48.1)
	Class hour	13(48.1)
	Department	11(40.7)
	Classroom	12(44.4)
	Available classes	6(22.2)
	Prerequisite	5(18.5)
Information for instructor	Name of instructor	24(88.9)
	Email address	19(70.4)
	Office hour	18(66.7)
	Contact information	15(55.6)
	Location of office	10(37.0)
	Homepage	9(33.3)
	Department	8(29.6)
	Office phone number	8(29.6)
	Assistant's number	6(22.2)
	Instructor's cell phone	5(18.5)
Description for subject	Evaluation	27(100)
	Overview	26(96.3)
	Goal of the class	26(96.3)
	Teaching Method	17(63.0)
	Assignment	15(55.6)
	Class policy	8(29.6)
Textbooks	Teaching tools	6(22.2)
	Textbooks	27(100)
Weekly plan	Reference books	25(92.6)
	Weekly plan	27(100)
	Learning contents	19(70.4)
	Topic	11(40.7)
	Note	9(33.3)
Extra	Preparation tools	10(30.7)
	Homework	6(22.2)
	Teaching material	5(18.5)
Extra	Support service for handicapped	10(30.7)
	Notice	5(18.5)

‘교재’의 2개 세부항목은 ‘교재’(100%)와 ‘참고도서’(92.6%) 순으로 나타났다.

‘주차별 계획’의 7개 세부항목은 ‘주’(100%), ‘학습내용’(70.4%), ‘주제’(40.7%), ‘비고’(33.3%), ‘준비물’(30.7%), ‘과제’(22.2%), ‘수업자료’(18.5%)의 순으로 구성 빈도가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업의 사항’의 2개 세부항목은 ‘장애인 지원사항’(30.7%)과 ‘기타’(18.5%)의 순으로 구성 빈도가 분석되었다.

### 3.2 교수 인터뷰 분석 결과

인터뷰에 응한 15명 교수의 성별은 남성 6명, 여성 9명 이었고, 연령은 평균 46세였고, P대학 근무 평균은 12년 이었으며,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자연·이공계열, 예체 능계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강의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은 ‘학습자에게 수업에 대한 안내를 위 해 작성한다’(8명)와 ‘교수의 책무감에서 작성한다’(7명) 로 요약되었다. Table 2

Table 2. Why do you write a syllabus? (N=15)

<i>I write a syllabus for students.</i>
“수강생들이 신청한 교과목을 통해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기 위해(교수 A, N) “학생들에게 강의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시키기 위해”(교수 C, M) “학생들에게 수업내용에 대한 정보와 진행방식 소개하기 위해”(교수 D) “학생들에게 본인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교수 F)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인지 알려주기 위해”(교수 G) “강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예습 및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교수 I)
<i>I write a syllabus as my duty.</i>
“강의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강의 내용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점검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교수 B) “강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해서이고, 또 학교 의 요구사항이기도 해서(교수 E) “분량, 시간분배 등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교수 L, H) “진도와 평가에 대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어서”(교수 J) “교육방법, 교육매체, 강의실배정, 그리고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사전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교수 K) “실습의 목적과 범위, 일정을 정리하여 콘텐츠를 확정하고 실습 가능 장비를 확인한 뒤 소모품 구입일정을 정리하기 위해(교수 O)

‘새 수업계획서에 꼭 필요한 항목을 말씀해주세요.’에 대한 의견은 현 수업계획서의 모든 항목이 다 필요하다고 보는 교수들이 제일 많았다(6명). 그리고 꼭 필요한 항목을 꼽은 교수들은 ‘수업의 목적과 목표’(5명), ‘교재’(4명), ‘평가방법’(4명), ‘과제’(2명), ‘담당교수 정보’(2명), ‘수업 규정’(2명), ‘수업의 일정 및 내용’(2명) 순으로 의견을 주었다.

‘담당교수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과 범위는 어느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연구실 전화번호(15명), 이메일(14명), 교수자 이름(13명), 상담시간(13명)제 시에 대해 응답교수의 대부분이 공감하였고, 그 외 연구

실 위치(9명), 교수자의 소속학과(9명), 핸드폰번호(7명) 제시 순으로 높게 나왔고 그 외 홈페이지(4명), 교수자 사진(2명), 조교 연락처(1명) 제시에 관한 의견이 있었다.

‘강의계획서의 양식은 어떤 것이 좋습니까?’에 대한 의견에서는 다양한 양식(9명) 선호가 통일된 하나의 양식 선호 (6명)보다 많았다. 다양한 양식으로는 이론형/실형·실습·실기형/ 체형형/ 융합형/ 교양외국어용 등을 예로 들었다.

‘수업 규정에 넣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해주세요.’에 관한 의견에서는 휴대폰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넣고자 하는 교수들이 제일 많았고(10명), 퀴즈안내(2명), 과제 안내(2명), 수업참여방법(1명), 휴·보강에 관련된 정보(1명), 실기수업에 필요한 장비 안내(1명)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강의계획서에 대한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말해주세요.’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수업매체 중 OHP를 활용한 방식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교수 C)

“학생들이 평가방법과 과제물에 관심이 많으므로 새로운 강의계획서에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항목화되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 (교수 F)

“수업방법 중 ‘기타’라는 용어대신 ‘구체적 수업방법’으로 교체 희망”(교수 G)

“강의계획서가 한 눈에 들어오도록 도식화되기를 희망”

“대학의 역량기준과 학과의 학습성과, 교과목의 목표가 제시되는 강의계획서를 희망한다(교수 M)

“인증평가 받는 학과는 인증평가 양식으로 하기를 희망한다(이중 작성 교충)”(교수 O)

### 3.3 강의계획서의 설계

문헌고찰 및 27개 강의계획서 구성요소 분석, P대학 교수 15인 인터뷰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의계획서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강의계획서의 구성요소는 대분류 10개와 세부항목은 기본형 38개에서 최대 66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체계로 고안되었다.

기존 6개의 대분류를 10개로 세분한 것은 교수자들이 학습자들에게 수업에 대한 정보와 선택권을 보다 선명하게 주고 싶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세부항목은 기본

형 38개를 필수로 하고, 교수자의 필요에 따라 66개 항목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하여 하나의 통일된 양식과 다양한 양식을 선호한다는 교수들의 강의계획서 양식에 대한 선호도를 결과적으로 다 반영하였다.

이와 같이 강의계획서는 기본 양식을 표준으로 하고, 담당 교수가 본인의 수업형태, 목적, 방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장시켜가면서 기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추가되는 방식이 아코디언처럼 늘려갈 수 있다는 뜻에서 '아코디언형 강의계획서'라고 별칭하기로 하였다.

내용면에서 새로운 강의계획서는 기존 강의계획서에 비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수업방법', '학습평가'의 대분류 내 세부항목에 교과목별 수업설계에 따라 교수자가 정하는 퍼센트를 각각 기입하도록 하고, 그 총합이 100%가 되도록 설정하여 수업과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를 학습자에게 사전 안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교과목정보'에 핵심역량, 학습성과(학과역량)를 추가하여 CQI와 연동되도록 하였다. 핵심역량은 P대학 5대 핵심역량과 하부 역량 20개 중 관련역량을 매핑하여 교과목의 목표가 학과 및 단과대학 그리고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비전을 반영한 특색 있는 학부교육 모델 창출[18]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의계획서에는 '출결규정'(학칙)과 '수업규정(class policy)'항목을 추가하였다. '출결규정'은 학습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으로, 담당 교수마다 출결규칙이 다르다는 불만을 해소시키고, 또 내부규정에 서툰 외래교수들에게도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효율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수업규정'은 학습자에게는 수업에 임하는 태도를 미리 주시시키고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교수자에게는 수업에 대한 권리를 명문화해서 보다 질 좋은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 3.4 강의계획서 개발

본 연구에서 설계된 강의계획서는 P대학의 정보운영팀에 의해 전산화되었다.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강의계획서의 입력과 출력 화면은 Figure 1과 같다.

입력된 강의계획서는 교수와 학생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저장 및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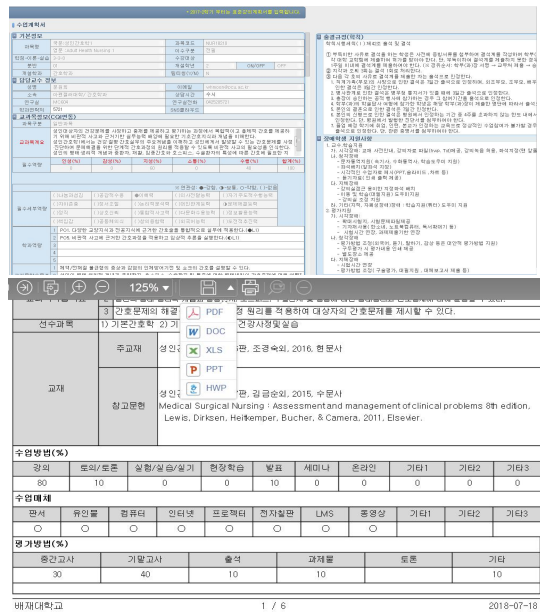


Fig. 1. Captured image for a computerized syllabus

### 3.5 강의계획서 평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아코디언형 강의계획서는 2인의 타 대학 교육전문가에 의해 평가를 받았다.

개발된 강의계획서에 대한 평가자들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기본형에서 출발하여 수업유형을 확장할 수 있다 강의계획서 입력의 편리성을 추구하였다 확장된 방식으로 교수자가 독창적 강의계획서로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다” (평가자 A)

“개발과정에서 타 대학의 다양한 사례 수집을 통해 강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다양한 교육요소를 도출하였다.”

교수자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였다. 내용 및 형식에서 핵심기본요소와 선택요소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교수자의 자율성을 확보하였다교수자는 기본 문항은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지만선택사항은 교수자의 교육 철학에 근거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융통성을 제공한 점이 특징이고 장점이다(평가자 B)

그리고 두 평가자는 개발된 강의계획서의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수업개요에 수업운영과 기재효과 등을 서술할 수 있

도록 한다. 학습목표 및 핵심역량은 교수자들이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샘플자료를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자 A)

“강의계획서 작성법 및 수업설계에 대한 지원, 홍보 동영상 등을 통해 교수자들에게 홍보가 잘 되도록 한다” (평가자 B)

####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P대학에 최적화된 강의계획서를 개발하기 위해 P대학 교육위원회 중심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문헌 고찰, 타 대학 강의계획서의 구성요소 분석, P대학 교수 인터뷰, 강의계획서의 설계 및 개발, 교육전문가의 평가로 이루어진 본 연구에 대한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의계획서의 구성요소 분류는 연구자의 관점 및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Jung(2007)[8]은 국외연구자들의 분류를 바탕으로 대분류 6개와 29개의 소분류로 구분하였고, Oh(2016)[9]는 6개 대학의 강의계획서를 분석하여 8개의 대분류와 36개의 소분류로 분류하였고, Kang & Lee(2013)[10]는 교육대학원의 강의계획서 분류를 8개의 대분류와 36개의 소분류로 분류하였으며, Kim et al(2015)[13]은 체육대학 강의계획서의 구성요소를 7개의 대분류와 19개의 소분류로 분류하였다. 구성요소의 용어 및 내용도 대상과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27개 대학의 강의계획서와 P대학 교수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0개의 대분류와 소분류를 기본형 38개에서 66개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Oh(2016)[9]의 인터뷰에서는 강의계획서의 중요한 항목으로 ‘교과목 정보’와 ‘평가방법’을 꼽은 반면, 본 연구의 교수자들은 ‘수업의 목적과 목표’, ‘교재’, ‘평가방법’을 들었다. 또 담당교수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해 Oh(2016)[9]의 연구에서는 핸드폰번호 제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반면, 본 연구의 교수자들은 긍정적인 답변이 더 높았다.

셋째, 강의계획서를 개발한 대부분의 연구는 특정학과 용이었다. 예를 들면 조경학과[11], 체육학과[13], 문헌정보학[14], 기초간호자연과학[15], 기초간호학[16] 강의계획서 개발을 들 수 있다. 또 동영상 강의계획서[3]나 시멘

트 강의계획서[6]와 같이 기술기반 강의계획서 개발에 주안점을 둔 연구가 있다. 반면 본 연구는 대학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강의계획서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아코디언형 강의계획서’는 문헌고찰, 교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개발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 핵심 기본 요소 외 선택 요소를 교수자가 선택하도록 하여 교수자의 자율성을 확보하였고, 교수자의 강의계획서 입력의 편리성을 추구하였으며, 확장된 방식에 따라 다양하고 독창적인 강의계획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아코디언형 강의계획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아코디언형 강의계획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당국의 많은 홍보가 있어야 한다. 학부 교육의 질 개선에 있어 학생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바로 강의계획서이기 때문에 담당교수는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강의계획서를 입력하도록 학교의 정책적인 유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우수 강의계획서를 공개하고, 작성 교수자를 포상하여 교내 구성원들의 모범이 되게 한다. 학부 교육의 질 개선은 몇 명의 교수가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수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므로 우수 강의계획서 포상을 통해 모든 교수자의 학습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수자와 학습자로부터 계속 피드백을 받아 아코디언형 강의계획서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새로운 강의계획서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고, 더 많은 교수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L. B. Nilson. (2003). *Teaching at its best*. Bolton, MA: Anker Publishing Company, INC.
- [2] O. K. Park. (2018). A Convergence Study for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n Syllabu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6), 321-327. DOI: 10.15207/JKCS.2018.9.6.321
- [3] H. Sim & W. H. Choi. (2017).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daptive Interaction-based Video Syllabus. *Journal of the KIECS*, 12(4), 663-670. DOI : 10.13067/JKIECS.2017.12.4.663
- [4] J. M. Statterry & J. F. Carlson. (2005). Preparing an effective syllabus: Current best practice. *College Teaching*, 53(4), 159-164.

[5] S. Y. Jeon. (1997). *University Curriculum and courses*. Seoul: Hakjisa.

[6] H. S. Jung & J. M. Kim. (2012). Design of Intelligent Model of Syllabus for Creating Adaptive Learning Path.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10(9), 132-142.

[7] S. H. Lee. (1987). *University Curriculum*.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8] H. R. Jung. (2007). *Un analysis of undergraduate course syllabus and development of models*,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9] M. J. Oh. (2016). Study on professors' and students' perception of the specificity of syllabu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11), 29-46. DOI: 10.22251/JLCCI. 2016.16.11.29

[10] S. H. Kang & E. J. Lee. (2013). A Study of Learner's Usage and Satisfaction by the Levels of Perception of the Course Syllabus: in 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4(1), 31-61.

[11] A. Y. Kim. (2016). Analysis of Syllabi for Landscape Architectural Design Courses as Projected-Based Classes and Improvement Strategie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4(1), 51-65. DOI: 10.9715/KILA.2016.44.1.051

[12] E. J. Ryu & J. H. Park. (2013). A study on the students' satisfaction and utilization related to the syllabus-based on the beauty related department in the 4-year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9(2), 102-111.

[13] D. W. Kim, M. H. Kim, K. B. Cho, H. S. Lee, S. Y. Kim. (2015). Analysis of American College Physical Education Class Syllabi to Develop and Improve College Physical Education Class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4(5), 425-436.

[14] Y. H. Noh, I. J. Ahn, S. K. Choi. (2013). A Study on Analyzing and Developing the Syllabu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re Cours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1), 143-175.

[15] K. S. Lee, J. S. Jeong, M. A. Choe, J. H. Kim, G. J. An, J. H. Kim, G. S. Shin, Y. K. Kim, Y. M. Lee, S. H. Chu, S. Choi. (2013). Development of Standard Syllabuses for 4 Subjects of Bio-nursing. *The Journal of Korean Bio-nursing Science*, 15(1), 33-42.

[16] H. J. Park, Y. K. Kim, J. H. Kim, J. S. Jeong, S. Choi, H. S. Hong. (2015). Development of Syllabuses for Biological Nursing Science Subjects based on Learning Outcomes: Structure and Function of Human Body, Pathogenic Microbiology, Patho physiology, and

Mechanisms and Effects of Drug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17(2), 188-210.

[17] J. Y. Park, S. W. Kim, W. H. Moon, O. K. Park, G. B. Lee, and I. S. Choi. (2017). *Standardized Syllabus Development Report*. Daejeon: Pai Chai University Press.

[18] S. H. Bae, E. J. Ra, S. I. Han. (2017). Effects of the ACE Project on Student Engagement: An Investigation of Supportive Environment, Student-faculty Interaction, Higher-order Learning, and Quantity of Learning.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5(1), 379-410.

문 원 희(Weon-Hee Moon)

[중신회원]



- 2001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6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5년 3월 ~ 2015 3월 :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메타분석, 시뮬레이션 교육
- E-Mail : whmoon@pcu.ac.kr

박 옥 희(Park, Ok Hee)

[정회원]



- 1998년 5월: 뉴욕주립대학교(SUNY at Albany)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 2007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학 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주시경대학 기초교육부 교수

- 관심분야 : 영어교육일반, 교육과정 개발, 메타분석,
- E-Mail : okpark@pcu.ac.kr

최 임 숙(Choi, Im Sook)

[정회원]



- 1985년 2월 : 충남대학교 심리학과(문학사)
- 1991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문학석사)
- 2004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8년 2월 ~ 현재 : 배재대학교 교직부 교수

- 관심분야 : 자기주도학습, 교수학습전략, 협동학습
- E-Mail : eduim@pcu.ac.kr